

웹툰 콘텐츠의 시각적 서사력 향상을 위한 패션디자인 기반 수업 연구

이지연
경인교육대학교대학원 미술교육과
jiyeonwithu@naver.com

A Study on the Fashion Design-Based Instruction to Improve Visual Narrative Competence in Webtoon Content

Jiyeon Lee
Dept. of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1. 서론

웹툰은 텍스트와 이미지가 결합한 시각적 서사 매체로, 감정과 서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시각적 구성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캐릭터 디자인은 독자가 이야기에 몰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그 중 의상 디자인은 캐릭터의 성격, 시대적 배경, 사회적 계층,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의 웹툰 콘텐츠 전공 교육은 주로 서사 구성, 콘티 작성, 드로잉 기술 중심의 교육에 머무르고 있으며, 의상 디자인은 스타일링 수준에 머무르거나 개별 감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패션디자인은 본래 문화적 맥락, 사회적 상징, 감정 표현 등 복합적 요소를 통합하여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분야이며, 이러한 시각 언어는 웹툰 서사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적 자원이 된다. 또한 미술교육의 시각문화 접근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시각 기호를 해석하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비판적 시각 문해력을 강조한다. 이러한 미술교육 관점을 패션디자인 기반 수업에 결합할 경우, 웹툰 전공 학생들에게 시각적 서사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창의적 표현 능력을 동시에 길러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디자인의 시각 언어와 미술교육의 이론적 접근을 바탕으로, 웹툰 콘텐츠의 시각적 서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웹툰 콘텐츠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패션디자인의 시각 언어 요소를 활용한 수업 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시각적 서사력 향상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있다.

웹툰 창작 과정에서 캐릭터의 정체성과 감정을 시각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의상, 색채, 질감, 스타일링 등의 디자인 요소를 통합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을 고안하고자 한다. 또한, 수업 설계는 단순한 스타일 제안이 아닌, 캐릭터 서사 구조 속에서 의상이 어떻게 기능하고 해석되는지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이야기 전달력, 감정 표현력, 비주얼 내러티브 구성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웹툰 전공 교육에서의 패션디자인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시각문화 기반 융합미술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는 데 의의를 둔다.

2.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조사를 통해 시각적 서사, 웹툰 교육, 패션디자인의 시각 기호성 및 내러티브 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알아본다. 둘째, 사례 분석 단계에서는 실제 웹툰 및 패션디자인 사례에서 시각적 서사 요소 및 감정 표현 방식을 추출하여 분석하고 웹툰 속 캐릭터 의상, 감정 장면, 컷 구성 등을 중심으로 시각 언어 표현의 기제를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실증적 연구로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해 본다. 이론 및 사례 분석을 토대로, 웹툰 전공자를 위한 패션디자인 기반 시각 서사 수업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학습자 수준과 실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4차지 구성으로 설계한다.

3. 연구 결과 및 결론

본 연구는 웹툰 전공 대학생의 시각적 서사 향상을 위한 교육적 접근으로, 패션디자인 기반 수업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수업안을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시각적 서사의 개념과 웹툰 창작 교육의 현황을 고찰하고, 패션디자인이 가진 시각적·서사적 특성이 웹툰 교육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문헌 연구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웹툰 전공자를 위한 4차시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첫째, 웹툰은 본질적으로 시각적 언어를 기반으로 한 매체이며, 컷 구성, 장면 배치, 시선 유도, 색채 사용 등을 통해 독자와의 정서적, 감각적 소통을 이끌어 낸다. 그러나 현재 대학의 웹툰 관련 교육과정은 드로잉, 서사구성, 제작 실습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각적 서사'에 대한 체계적 교육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학생들이 직관적으로는 시각 언어를 활용하나,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거나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를 보이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시각적 서사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자기표현에 전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 아래, 시각적 서사를 주요 교육 목표로 설정하고, 그 교육적 매개로서 패션디자인의 시각적 상징성과 조형 요소에 주목하였다.

둘째, 패션디자인은 단순한 외형적 치장이나 유행의 반영을 넘어, 개인의 감정, 사회적 정체성, 관계 맥락 등을 시각적으로 표상하는 기호체계이다. 색채, 실루엣, 소재, 레이어링, 디테일 등의 요소는 감정과 성격, 서사 상황을 은유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예를 들어, 어두운 컬러와 무거운 질감의 의상은 내면의 우울감이나 폐쇄적 감정을 시각화할 수 있고, 날카로운 실루엣이나 과장된 볼륨은 캐릭터의 힘, 방어성, 사회적 위상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다. 이처럼 패션은 감정과 스토리의 시각적 언어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는 웹툰의 시각적 내러티브와 깊이 있게 연결된다. 따라서 웹툰 전공 학생들이 패션디자인의 시각 언어를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창작물에 감정과 의미를 보다 정교하게 부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설계된 4차시 수업안은 시각적 서사 요소(컷 구성, 시선 유도, 정보 가치 등)와 패션디자인 요소(색채, 실루엣, 소재 등)를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수업 흐름은 다음과 같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1차시에서는 시각적 서사의 개념을 이해하고, 웹툰 속 감정 표현 방식을 시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의 시각 언어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인다.

2차시에서는 감정과 패션 요소 간의 연계를 탐색함으로써 감정의 시각적 번역 능력을 강화하고, 색채 및 조형 요소의 상징성

을 이해하는 기반을 형성한다.

3차시에서는 캐릭터의 내면성과 외형 스타일링을 연결함으로써 성격, 정체성, 감정 변화에 따른 시각적 표현 설계 능력을 기른다.

4차시에서는 감정, 스타일, 컷 구성을 종합하여 시각적 내러티브를 설계하고 표현하는 창작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는 감정과 스토리텔링을 이미지 수준에서 구조화하는 사고력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업 프로그램 개발까지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실제 수업 적용 및 효과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발된 수업을 실제 수업 현장에 적용하고, 사전-사후 비교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시각적 서사 인식 및 표현력 향상 정도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전공 배경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장 적용하거나, 애니메이션·영상·일러스트레이션 등 인접 예술 분야와의 융합 가능성도 탐색 될 수 있을 것이다.